



국어 5-2

5학년 2학기 되돌아보기(2차)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 8. 우리말 지키미

전주송북초등학교

6학년 5반 번

이름: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가) 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보고 저녁밥도 챙기기로 했다.

“엄마, 아빠께서 오시면 피곤하실 테니까 우리가 저녁밥을 해 먹자.”

나는 동생과 함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도 했다. 그릇을 다 씻고 나서 프라이팬도 닦기로 했다.

‘프라이팬이 잘 닦이지 않네?’

(나) 철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문지르니 금세 찌든 때가 벗겨져 나갔다.

저녁 늦게 부모님께서 돌아오셨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구나. 잘 있었니?”

“네. 저희가 저녁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했어요.”

“설거지까지? 우리 현욱이 다 컸네.”

흐뭇한 얼굴로 부엌을 둘러보시던 엄마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다.

“현욱아, 혹시 프라이팬도 닦았니?”

“네, 제가 철 수세미로 문질러 깨끗이 닦았어요.”

“뭐라고? 철 수세미로 문질렀다는 말이니?”

“네. 수세미로는 잘 닦이지 않아서 철 수세미로 썼어요.”

엄마는 한숨을 한 번 쉬시고는 다시 웃음을 띠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했구나. 그렇지만 금속으로 프라이팬 바닥을 닦으면 바닥이 벗겨져서 못 쓰게 된단다.”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던 나는 금세 부끄러워졌다.

“죄송해요, 엄마. 집안일을 도와드리려다가 오히려 프라이팬만 망가뜨렸어요.”

엄마는 웃으며 나를 꼭 안아 주셨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한 현욱이 마음이 엄마는 정말 고마워.”

1 현욱이가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용돈을 벌기 위해서
- ② 프라이팬을 깨끗하게 태워서
- ③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 ④ 동생이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 ⑤ 엄마가 현욱이에게 설거지를 해 놓으라고 해서

2 프라이팬을 망가뜨린 현욱이에게 엄마가 화를 내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현욱이가 엄마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 ② 현욱이의 마음이 고맙고 기특했기 때문에
- ③ 현욱이가 프라이팬을 새로 사 왔기 때문에
- ④ 아빠가 화를 내려는 엄마를 말렸기 때문에
- ⑤ 현욱이가 동생의 잘못을 감싸주었기 때문에

3 이 글에 나타난 현욱이와 엄마의 대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 ㉠ 경청하기
- ㉡ 공감하며 말하기
- ㉢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말하기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가) 우리 조상들은 왜 줄을 만들어 서로 당기는 놀이를 했을까요? 그것은 농사와 관련이 깊어요.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 온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소망은 풍년이었어요. 농사가 잘되려면 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용을 닮은 줄을 만들고 흥겹게 줄다리기 해서 용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물의 신인 용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풍년이 들 테니까요.

(나) 조상들은 대보름이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줄다리기 준비에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이 모두 함께 줄다리를 했지요. 온 마을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짚을 거두고 놀이에 필요한 돈과 일손을 내어 줄을 만들어 놀이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줄다리를 거르는 법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봄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고, 줄다리기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지으려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영산 줄다리기는 1969년에 국가 무형 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답니다.

- 4 조상들이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아이들이 용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 ② 상상의 동물인 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 ③ 용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 ④ 용을 닮은 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 ⑤ 물의 신인 용을 기쁘게 하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 5 다음은 문단 (가)와 문단 (나)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을 읽을 때 떠오른 생각인지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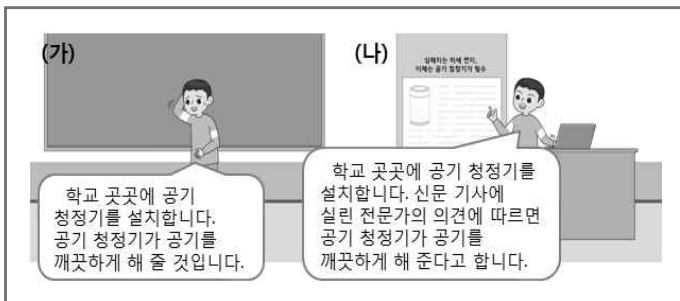
윤서: 또 다른 국가 무형 문화재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

- 6 체험한 일을 떠올려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표현하고 싶은 일을 쓰고, 그 일을 고른 까닭도 쓰시오.

체험한 일	(1)
글로 표현하고 싶은 까닭	(2)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7~9)



- 7 남자아이가 의견에 대한 근거로 말한 내용을 쓰시오.

- 8 그림 (가)와 (나)의 다른 점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가)와 (나)는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르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같은 자료를 쓰고 있다.
㉡ (가)에서는 아무런 자료 없이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신문 기사에 실린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 9 그림 (나)와 같이 자료를 제시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의견과 근거를 이해하기 쉽다.
- ② 의견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④ 듣는 사람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
- ⑤ 의견을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알 수 있다.

- 10 문장 성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글을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 ② 문장을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 ③ 상상하여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 ④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⑤ 문장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 11 다음은 윤서가 겪은 일을 글로 쓰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생각한 것입니까? ()



- ① 계획하기
- ② 고쳐 쓰기
- ③ 표현하기
- ④ 내용 조직하기
- ⑤ 내용 생성하기

12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

13 다음 성격이 비슷한 매체 자료끼리 짝 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책, 잡지
- ② 신문, 연속극
- ③ 신문, 누리 소통망[SNS]
- ④ 잡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 ⑤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영화

※ 다음은 김득신에 관한 영상 매체 자료를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16)

김득신은 열 살에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득신은 정삼품 부제학을 지낸 김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변에서는 우둔한 김득신을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득신의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김득신을 대견스럽게 여겼다. 김득신은 스무 살에 처음으로 작문을 했다. 김득신의 아버지는 공부란 꼭 과거를 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니 더욱 노력하라고 김득신을 격려했다. 김득신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며 공부했으나 하인도 외우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득신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 번 이상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김득신은 59세에 문과에 급제해 성균관에 입학했다. 김득신은 많은 책과 시를 읽었지만 자신만의 시어로 시를 썼다. 많은 사람이 김득신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14 김득신의 아버지는 어떤 말로 김득신을 격려했습니까? ()

- 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 ② 공부보다는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 ③ 김득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라고
- ④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과거에 합격할 거라고
- ⑤ 공부란 꼭 과거를 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니 더욱 노력하라고

15 많은 사람들이 김득신의 시를 높이 평가한 까닭을 쓰시오.
()

16 다음은 영상 매체 자료 「김득신」 마무리 부분에 사용된 음악의 느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음악이 주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음악

- 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린다.
- ② 이야기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린다.
- ③ 이야기에서 갈등이 심해진 것을 표현한다.
- ④ 읽은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김득신이 생각나게 한다.
- ⑤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김득신의 사람을 돌아보는 느낌을 준다.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18)



17 이 그림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 ① 학교 운동장의 쓰레기 문제
- ② 학생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문제
- ③ 나쁜 어린이가 점점 줄고 있는 문제
- ④ 학생들이 복도에서 크게 떠드는 문제
- ⑤ 우리 학교에서만 하는 인사말에 대한 문제

18 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두 글자로 쓰시오.
()

19 토론에서 주장을 다지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 ()

- ① 자기편의 주장을 요약한다.
- ②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친다.
- ③ 자기편 주장의 장점을 정리한다.
- ④ 상대방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

제일 먼저 닳나무를 베어다 푹푹 찢 뒤, 나무껍질을 훌러덩 훌러덩 벗겨서 물에 불려. 그러고는 다시 거칠거칠한 겉껍질을 닳칼로 긁어내고 보들보들 하얀 속껍질만 모아.

이렇게 모은 속껍질은 삶아서 더 보드랍게, 더 하얗게 만들어야 해. 먼저 닳술에 물을 붓고 속껍질을 담가. 그리고 콩대를 태워 만든 잿물을 붓고 보글보글 부글부글 삶아. 푹 삶은 다음에는 건져 내서 찰찰찰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이제 보드랍고 하얗게 바랜 속껍질을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닳 방망이로 찢어 가닥가닥 곱게 풀어야 해. 쿵쿵 쿵쿵! 숨처럼 풀어진 속껍질은 다시 물에 넣고 잘 풀어지라고 휘휘 저어. 그런 다음 닳풀을 넣고 다시 잘 엉겨 붙으라고 휘휘 저어 주지.

아, 한지를 물들이려면 지금 준비해야 해. 잇꽃으로 물들이면 붉은 한지되고 치자로 물들이면 노랑, 쪽물은 파랑, 먹으로 물들이면 검은 한지되지.

이번에는 엉겨 붙은 속껍질을 물에서 떼내야 해, 촌촌한 대나무 발을 외줄에 걸어서 앞뒤로 찰방, 좌우로 찰방찰방 건져 올리면 물은 주룩주룩 빠지고 발 위에는 하얀 막만 남아. 젖은 종이처럼 말이야. 이렇게 한 장 한 장 떼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 무거운 돌로 하루 정도 눌러서 남은 물기를 빼.

마지막으로 차곡차곡 눌러둔 걸 한 장 한 장 떼어서 판관하게 말려야 해, 따뜻한 온돌 방바닥이나 판관한 벽에 짹짹 펴서 말리면 드디어 숨 쉬는 종이, 한지 완성!

20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한지의 이름
- ② 종이의 종류
- ③ 한지의 발달 과정
- ④ 한지가 만들어진 까닭
- ⑤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21 잇꽃으로 물들이면 한지는 어떤 색이 되는지 쓰시오.

()

22 한지를 만드는 마지막 과정은 무엇입니까? ()

- ① 닳나무를 베어다 푹푹 찢다.
- ② 나무껍질을 훌러덩 훌러덩 벗겨서 물에 불린다.
- ③ 돌로 차곡차곡 눌러둔 걸 한 장 한 장 떼어서 판관하게 말린다.
- ④ 보드랍고 하얗게 바랜 속껍질을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닳 방망이로 찢는다.
- ⑤ 풀어진 속껍질에 닳풀을 넣고 다시 잘 엉겨 붙으라고 휘휘 저어 준다.

23 조사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조사 기간이 적절한가?
- ② 조사 방법이 적절한가?
- ③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가?
- ④ 조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가?
- ⑤ 조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가?

24 다음 발표에서 여진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친근한 말투로 말해야 한다.
- ② 적당한 속도로 말해야 한다.
- ③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한다.
- ④ 너무 많은 내용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 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크기로 말해야 한다.

25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